

웃돈없는 한국시리즈 티켓 흥행... 법 망 뚫은 '매크로' 의심

일반인 표 예매, 하늘의 별이지만 당근마켓 등서 암표 찾기 쉬워 불법예매 '매크로', 단속에 한계 일각서 美의 티켓 리셀시장 처럼 암표 시장의 '양지화' 주장하기도

“남편이랑 연애시절부터 LG트윈스 경기를 많이 보러 다녔다. LG트윈스가 한국시리즈에 올라갔다고 해서 예매 시작 시간에 맞춰서 남편이랑 2명에서 동시에 1~5차전 티켓팅을 했는데, 한 표도 건지지 못했다. 6~7차전도 실패했다. 남편 친구들은 한 장에 15만원짜리 암표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해서 어제(7일) 1차전에 다녀왔다고 하더라.”(30대 주부 최 모씨)

이른바 '매크로(단순 반복 작업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개의 명령어 키를 하나에 묶어 사용하는 것)' 프로그램을 통한 예매가 온라인에서 횡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회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벌금을 부과하지만 현장에서 제도가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23 신한은행 SOL(솔) KBO리그(프로야구)에서 관중 순위 1위를 차지한 LG트윈스는 정규시즌 1위를 차지해 결승전인 '한국시리즈'에 직행했다. 29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서울을 연고지로 하는 LG트윈스의 호성적에 가을야



/한국프로스포츠협회(KPSA)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3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1차전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LG팬들이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다. /뉴스1

구의 상징인 '유광점포'를 입고 야구장을 가려는 팬들로 예매 시작부터 경쟁이 치열했다.

팬들은 인터파크 웹사이트, AR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인당 최대 4매까지 예매를 할 수 있었다. 1·2차전은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고 3·4차전도 서울과 가까운 수원(KT 위즈의 홈구장)에서 열려 예매 열기는 더 뜨거웠다.

그러나 한국시리즈 7차전까지 예매가 열린 현재,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7차전까지도 장애인 좌석을 제외한 모든 좌석이 매진된 상태다.

이처럼 표를 구하기 어렵지만, 한국시리즈 티켓은 웃돈을 얹은 가격으로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판매 위탁자가 아닌 사람이 정가보다 비싸게 표를 판매하면 불법이다.

실제로, 7일 오전에 한국시리즈 2차

전 3루 내비석 한 자리를 거래하는 글이 중고거래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왔는데, 정가인 4만5000원보다 3배 이상 비싼 15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많은 야구팬들은 암표상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수의 표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로그인-부정방지 문자 입력-좌석 선택-결제 등의 예매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게 설정해 놓기 때문에 마우스 클릭에 의존하는 일반 소비자와 예매경쟁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KBO도 교육지책으로 포스트시즌 중 암표 의심사례를 암표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한국시리즈 티켓 2매를 주는 행사를 진행했지만 암표 근절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엔 역부족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에 의한 피해는 야구

경기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임영웅, 블랙핑크 등 유명 가수의 공연, 대학교 인기 강좌의 수강신청까지 이미 온라인과 선착순이라는 방식이 존재하는 경쟁에 선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표를 구하기 어려워 지자 공연법 개정안이 올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주문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그러나 IT 업계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이 모씨는 일반인도 충분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용이 쉽다고 말했다.

이 씨는 "웹 기능을 훔쳐내는 정도라면 누구나 웹통신과 컴퓨터공학을 조금

배워서 매크로를 만들 수 있다"며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는 며칠 안으로 짤짤히 시간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표를 판매한다고 해도, 티켓 정보를 추적할 수 있을만큼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찾아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예매한 사람의 개인 정보와 현장 발권한 사람의 신분증을 대조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 신분증 대조 후에 현장에서 암표 구매자와 따로 만나서 거래해 버리면 답이 없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티켓 리셀 시장을 활성화해 음지에 형성돼 있는 암표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은 뉴욕주는 문화예술법에 따라 티켓을 재판매하려면 라이선스를 발급받고 2만5000달러 이상의 예치금을 뒀야 한다. 환불에 대한 책임을 재판매업자에게 두는 것도 특징이다.

또한 NFT(대체불가토큰) 기술이 암표 근절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NFT 기술을 티켓에 적용하면, 구매 정보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암표 판매나 양도가 불가능하고, 매크로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일례로 현대카드와 모던라이엇은 NFT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코크릿(KO NKRIT)'을 개발해 현대카드의 문화융·복합 이벤트였던 '2023 현대카드 다빈치모텔' 티켓을 전량 판매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서민경제 고려... 대기업 겨냥 전기료 인상”

한국전력, 전기요금 조정안 주택용·소상공인 요금은 '동결' "정치적 상황, 고려하지 않았다"

한국전력은 8일 경영위기 자구책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 조정안도 발표했다.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소상공인 등 요금은 동결하는 대신, 주로 대기업이 쓰는 산업용 대용량 요금을 9일부터 평균 킬로와트시(kWh) 당 10.6원 인상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산업용 고객 중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동결하고,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에 대해서는 9일부터 전력량요금을 평균 10.6원/kWh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상되는 산업용(을)은 2022년 기준 고객을 기준으로 0.2% 수준이지만, 전력사용량은 26만7191기가와트시(GWh)로 총 전력사용량(54만7933GWh)의 약 절반(48.9%) 수준을 차지한다. 시설규모 등에 따라 산업용(을) 고압A는 6.7원/kWh, 그외 고압 B·C는 13.5원/kWh 인상된다.

고압A를 쓰는 기업의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액은 약 200만원, 고압 B·C 기업은 각각 평균 2억5000만원, 3억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전의 매출 증가분은 올해 4000억원, 내년엔 2조8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번 요금 조정안은 국제 에너지가격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과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인상 등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 일부를 반영하되, 물가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기업의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국제 원료가격 폭등 등 영향으로 한전의 2021~2023년 상반기 누적 적자는 약 47조원, 2023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1조원에 달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다. 한전은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해 하루 이자비용만 약 118억원 발생한다.

또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의 개선과 동계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강경성 산업2차관은 "전기요금 조정

대상인 산업용(을)은 일반 가정의 10배 이상 기업이 쓰는 요금으로 그동안 값싼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한 혜택을 누려왔다"며 "기업들이 경영효율화와 에너지효율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지원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소상공인 용 전기요금 동결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강 차관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 에너지가격이 올라 판매가가 원가에 미달한다는 점, 총 5차례 인상했다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가스요금도 동결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0

10월 가계대출 6.8조 늘어 1086.6조

한은, 주담대 839.6조... 5.8조 증가 기타대출잔액 1조 늘어 245.7조 기록

소폭 감소했던 가계대출이 또다시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공모주 청약 등으로 신용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관련기사 8면>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86조6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8월 6조9000억원 증가한 이후 올해 들어 2번째로 큰 규모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839조6000억원으로 한달새 5조8000억원 증가했다. 증가규모는 지난 8월(7조원)과 9월(6조1000억원)에 비해 소폭 축소됐다.

윤옥자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 시장총괄팀 차장은 "8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많은 편이었다"며 "이 부분이 시차를 두고 10월 주택담보대출 수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보면 7월 3만4000호에서 8월 3만7000호로 증가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같은 기간 1만5000호에서 1만6000호로 늘었다. /나누리 기자 yul115@

尹, 차기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지명

“대법관으로서 ‘원칙론자’ 정평”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사진)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조희대 전 대법관은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 헌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함



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고 설명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희대 전 대법관은 경북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